

# 완도관광, '체류형 치유'로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 군,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건강관리 서비스 진화...생활인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완도군이 '치유'를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소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당일치기 관광이 아닌 일정 기간 완도에 머무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체류형 치유'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그 중심에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는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실이 있으며, 해양치유는 전신 이완, 스트레스·통증 완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호흡기·알레르기 증상 완화, 수면 장애 개선, 피부 진정 등에 도움이 된다. 5월 27일 기준 센터에는 14만600여명이 방문했고, 해양 기후·문화 치유와 맨발

걷기를 하고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을 찾은 치유객 수는 65만 7000여명에 이른다. 치유객 유입은 숙박과 식음, 관광 소비로 이어지며 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군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치유객 수보다 '머무는 시간'에 주목했다. 해양치유 활성화와 효과 검증,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1박 2일부터 5박 6일로 구성된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바다, 숲, 섬 등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해 해양치유, 해양기후치유, 산림치유, 섬 투어, 해양 활동(전복 채취 등), 치유 식단 체험 등이 진



명상풀



저주파 테라피

행된다. 군은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 상태와 심리 변화를 분석해 치유 효과를 검증하는 '완도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 표준화·제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보험과 연계된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치유와 더불어 완도의 청정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변 맨발 걷기와 산책을 통해 해풍, 공기 중 산소 음이온을 흡입하면 심폐기능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의 은화한 해양성 기후와 사계절 푸른 난대림은 심신 회복에 적합한 환경으로 숲속 명상과 산책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해조류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식단'도 마련돼 있는 등 완도의 치유 모델은 단순 관광·체험이 아닌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로 발전 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에서의 치유 활동은 삶을 충전하는 과정이다"며 "완도에서의 바다, 숲, 섬을 하나의 치유 플랫폼으로 확장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진도 '건강도시 스텝투어' 윤림산림욕장 등 4곳 선정

진도군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최하는 '2026년 건강도시 스텝투어-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운동(캠페인)에 지역 내 명소 4개소가 올해 신규 등록됐다. '건강도시 스텝투어'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명소를 방문해 걷기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앱(워크온)을 통해 인증 후 스텝투어 적립되는 방식이며 추천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전국의 스텝투어 방문지는 725곳이며, 이 중 진도군은 윤림산림욕장, 이충무공승전공원, 진도신비의바닷길, 진도개테마파크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윤림산림욕장은 계절별 다양한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곳이고, 편백숲 사이로 무장애 길이 조성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이충무공승전공원은 거대한 이충무공 동상 주위에 조성된 공중 보행로(스카이워크)를 통해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 강진 아트팜, 미래형 인공지능 스마트팜 실증

### 영농형 태양광 기반...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

강진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아트팜이 영농형 태양광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농업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기반의 스마트농업 구축에 나선다. 31일 강진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배출 제로 AI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영농조합법인 아트팜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영농형 태양광과 AI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업체계 구현이 핵심이다. 순천대와 목포대 등 참여기관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최적 운영 알고리즘 개발과 탄소중립 시뮬레이션 구축을 맡고, 강진군 아트팜 일원에서는 영농형 태양

광 기반 스마트온실 운영기술과 AI 환경제어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23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햇빛 투과율 조절이 가능한 투과형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활용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시설원에 분야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AI 기반 환경 분석과 데이터 활용 기술을 통해 작물 생육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 안정성과 스마트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 '영암~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인가

영암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으면 서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영암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

근 '해남-영암-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인가를 최종 수리했다. 해당 노선은 하루 1회 운행하는 노선으로 신설 인가됐다. 이번 노선 인가는 인천공항 이용 시 환승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강진-인천공항' 노선 신설 당시 국토부 등에 영암 경유를 건의했으며, 이후 금호고속이 '해남-영암-인천공항' 노선 인가를 신청해 이번에 최종 수리됐다. 군은 향후 운행에 차질 없도록 여객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한정수 기자 hck1342@

## 해남 여름밤, '문화축제'로 낭만 충전

### 11~12일 군민광장 일원

해남군은 6월 11~12일 이틀간 해남군민광장에서 '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지역 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축제 첫날인 11일에는 손빈아, 김수찬, 요요미, 진이람이 출연해 흥겨운 트로트 무대를 선보인다. 세대를 아우르는 신나는 공연으로 축제의 첫날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다이나믹 듀오, 펀치, 가비엔제이, 모리아가 무대

에 올라 힙합과 발라드가 어우러진 감성 가득한 공연을 선사한다. 여름밤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밤의 문화축제는 군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남군민광장에서 무대공연을 즐기고, 군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힐링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해남군민광장을 중심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 행사로 운영되면서 가족과 이웃,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여름행사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 아카데미홀 임대

-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임대문의 : 062)370-7080